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동양고전산책 | 정형외과 질환별 팸플렛 발간 | 공지사항 | 제37차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 | SICOT 국제학회 참가 논문발표 장학금 지원 | CIOS 공지사항 | CIOS 인용상 |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 | 2016년도 학술상 수상 대상 논문 접수 | 전문의 시험 논문 접수 규정 개정안 |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 교실 소식 | 국제학술대회 | 회원동정 | CONFERENCE | 고문변호사 칼럼 | 출간소식

회장 김성재 · 이사장 김기택 · 총무이사 정비오



7

2016 JULY vol.317



胡服騎射와 諫逐客書

(호복기사, 오랑캐 옷을 입고 말을 타고 활을 쏜다. 史記 趙世家)

(간축객서, 외국인을 축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상소문, 史記 李斯列傳)

춘추시대(春秋時代, BC771~BC403년) 초에는 중국에 약 1700~1800여의 무수히 많은 작은 나라가 있었다 하는데 점차 전쟁 등을 통해 합병이 일어나 춘추 말에는 약 1/10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전국시대(戰國時代, BC403~BC221년) 말에는 단 7개 나라만이 (齊, 楚, 秦, 燕, 魏, 韓, 趙) 남게 되며 이를 전국칠웅(戰國七雄)이라 하며 결국에는 진시황(秦始皇)이 나머지 6개국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게 된다(六國統一)。 따라서 춘추전국시대의 각 나라가 당면한 절실한 목표는 국가의 생존이었다. 즉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었고 이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의 발전과 생존 전략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제자백가(諸子百家)라 부르며, 儒家, 法家, 道家, 墨家, 兵家, 農家 등 수 많은 학파가 있었다.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고 부국강병을 통해 국가의 생존을 꾀한 法家뿐 아니라 공자가 14년간 천하를 떠돌아 다니는 周遊天下(주유천하)도 결국 각 나라에 자기만의 국가 발전과 생존 전략 방법을 써 달라고 유세를 한 것이었고, 맹자가 양혜왕(梁惠王→魏惠王) 앞에서 仁義에 관해 열변을 토한 것도 仁義를 통한 魏(위)나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마음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지혜와 사상이 모두 나타나는데 중국의 사상가 풍우란(馮友蘭, 1895~1990)은 이 제자백가의 시대를 자학시대(子學時代)라 하였고 그 이후의 약 2500년간을 子學時代에 이미 다 완성된 철학과 사상을 다시 재해석하고 되새김질하는 경학시대(經學時代)로 구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언급하여 유명하게 된 풍우란의 ‘중국철학사’를 읽기를 권한다.

현대에도 약 200여개의 국가가 치열한 소리 없는 군사, 외교, 경제전쟁을 매일 하고 있다. 이 가혹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와 비슷하게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춘추전국시대를 연구하고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군사적으로는 손자병법, 강대국과 외교하는 약소국의 외교 방법은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의 합종책과 연횡책을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관중(管仲)이 쓴 管子를 보면 이미 관세, 전매제도, 보세구역 등 발전된 무역의 개념과 정부의 시장 개입, 균형 재정과 물가 정책등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경제적 책략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 관중의 경제 개혁에 의해 齊(제)나라는 이후 진시황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수백년간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을 하는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다. 위대한 리더의 필요충분조건은 어떻게 하면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자기편으로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전국시대의 趙(조)나라는 동쪽에는齊나라, 서쪽에는秦나라, 북쪽에는燕나라와 동호(東胡) 등의 오랑캐 나라로 둘러 쌓여 계속 침략을 당하는 약소국이었다. 조나라의 젊은 왕 무령왕(武靈王, BC.340~BC.295)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늘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분발해서 한시 바빠 제도를 개혁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요. 과인이 보기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는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길어서 일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적지 않소. 반면에 호복(胡服, 오랑캐 유목민족들이 입는 옷)은 소매가 좁고 옷자락이 짧아서 일하기도 좋고 전장에서 창칼을 쓰기도 좋소. 그래서 과인은 우리의 의복도 호복처럼 고쳐으면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떨소?” 그런데 무령왕의 이 계획에 대해 많은 대신들이 반대했다. 특히 왕의 숙부인 공자성(公子成)은 반대파의 우두머리로서 오랑개 옷을 입는 개혁을 절대 반대했다. “신이 듣기에 중국은 성현의 가르침을 행하는 곳이자, 인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자, 시(詩), 서(書), 예악이 행해지는 곳이고 오랑개들이 우러러 보는 곳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랑개 복장을 입어 성인의 가르침과 법도를 바꾸고, 인심을 거역하려 하십니까.”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무령왕은 개혁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개혁을 단행하려면 반대파의 우두머리부터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무령왕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자성의 집을 직접 찾아가 간절하게 호복의 이점을 거듭 이야기해서 결국 그를 설득시켰다. 다음날 그렇게 반대를 하던 공자성이 호복을 입고 조회에 나타나자 다른 대신들도 더는 반대하지 못하고 모두 호복을 입게 되었다. 조정의 의견이 통일되자 무령왕은 전국에 복장 개혁에 관한 어명을 내렸다. 머지않아 조나라 사람들은 귀천이나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호복을 입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다들 호복이 간편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무령왕은 온 국민에게 오랑캐 옷을 입고 말을 타고 활을 쓰는 법을 배우게 했다. 그리하여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조나라는 막강한 기병대를 갖게 되었고 주위의 오랑캐 땅을 정복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시켜 강대국이 되었고 장평대전(長平大戰, BC. 262~260) 이전까지는 초강대국인 춘나라에 군사적으로 거의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계속 청와대 회의에서 열을 내며 얘기를 한다. 국회와 야당이 협조를 안 하니 개혁을 못해 나라꼴이 이 모양이라고 한탄도 한다. 그러나 조무래왕과 같이 한번 야당 당수의 집을 찾아가 간절하게 원하는 개혁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지 쓸데없는 꿈을 꾸어 본다. 설령 설득이 안되더라도 온 국민들은 간절하게 노력을 하는 대통령에게 감동을 받아 그 노력을 지지할 터인데.....

중원에서 멀리 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오랑개와 다른없는 별 볼일 없던 야만 국가인 쉐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다양한 해석과 논리가 있지만 내 개인 생각으로는 역대 진나라 국왕들의 열린 마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나라의 최고위직인 상국(相國)과 승상(丞相)들은 거의 전부가 외국 사람들이었다. 진나라 본토 사람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특히 진목공(秦穆公, 재위 BC 659~621)은 우(虞)나라의 70세를 넘긴 노인 백리해(百里奚)에게 국정을 맡긴 이후에 국적, 신분, 나이를 묻지 않고 천하의 인재가 영업하는 사물문(四不問, 네가지를 묻지 않음)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 정책은 이후 진나라의 기본 정책으로 진시황 통일 때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영입된 똑똑한 외국인인 진나라 정권을 맡아 과감히 각종 개혁을 하여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변모를 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완수한 것이었다. 백리해, 건숙, 유여, 상양, 장의, 범저, 여불위, 이사 등 당대의 가장 능력 있는 외국인 인재가 정권을 맡아 개혁을 해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 물론 진시황이 직접 통치를 시작한 초기에는 諫客令(촉객령)으로 외국인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하였지만 초나라 평민 출신의 이사(李斯, ? - BC 208)가 진시황에게 올린 그 유명한 諫逐客書(간촉객서)를 읽은 진시황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과감히 인정하고 이 촉객령을 거두어 들인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똑똑한 일본인, 중국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길 만큼 열린 마음이 있는 지 의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전라도, 경상도등 자기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사람들, 자기 소속만 챙기는 꼬락서리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절망감이 들곤 한다. 또한 외국인은 고사하고 능력 있는 우리나라 사람도 온갖 청문회에서 망신을 주어 끌어 내리는 것을 보면 누가 정권을 담당하여 개혁을 이끌지 걱정이 된다. 李斯의 諫逐客書(간촉객서) 중 유명한 구절을 소개 하고자 한다.

泰山不辭十壤 故能成基大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소홀히 하지 않아 높은 산을 이룰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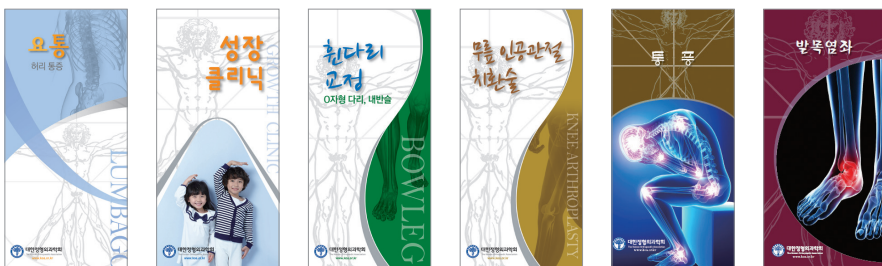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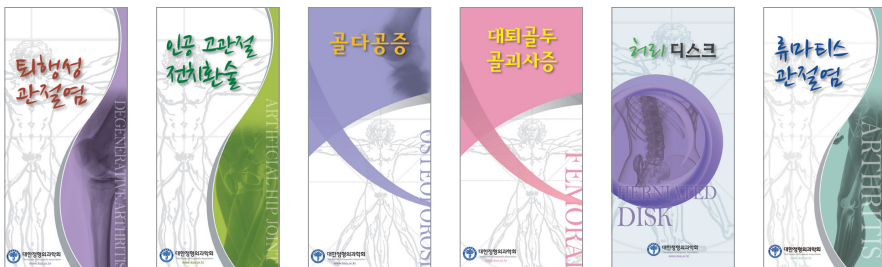
河海不擇細流 故能就基深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의 냇물이라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깊어질 수 있으며

王者不却衆庶 故能明基德

훌륭한 임금= 모든 서민과 인재를 멀리하지 않아야 그 덕을 발휘할 수 있다.

정형외과 질환별 팜플렛 발간



- 질환별 팜플렛 7종을 추가 제작(통풍, 발목염좌, 테니스엘보, 반월상 연골판 손상, 근육격계 초음파, 십자인대 파열, 어깨 인공관절수술)하였습니다.
- 질환별 팜플렛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학회 팩스(02-780-2767) 또는 이메일(ortho@koa.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은 질환별 100부당 15,000원입니다
- 송금계좌: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팜플렛 신청

- 신청자 성명:
- 병원명: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이메일:
- 주소:

질환명	신청 수	질환명	신청 수

위와 같이 신청함.



1.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 오픈

대한정형외과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4일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제학술대회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술대회 관련 정보 확인은 물론 등록과 초록 접수가 가능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2016.koa.or.kr/>

- 참여 방법: ① 상단의 "Sign Up"을 클릭하여 기존 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정형외과학회 회원 인증하기
② 회원 인증 후 "KOA 2016 Sign up" 클릭
③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개인 정보 기입 후 "Confirm" 클릭
④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Submit" 버튼 클릭

→ ID는 이메일 주소이며 기존 학회 홈페이지의 ID, PW와 혼동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봉사세션에 위한 사례 추천요청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정형외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6년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창립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 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계학술대회의 슬로건을 "함께한 60년 도약하는 100년"으로 정하고 국제 학술대회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많은 해외 연사들과 각국의 정형외과학회장님들을 초빙하여 비상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위상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들은 환자 진료에 있어 항상 국민들 편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헌신적인 활동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지난 60년간 우리 국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 기부한 것을 알리고 이를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국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라는 인식을 고취하고자 이번 60주년 행사에 사회 봉사 세션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님 본인의 활동은 물론 동료 회원님들의 사회봉사활동(국내 혹은 해외)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 널리 알리고 동료회원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주시어 학회 이메일(ortho@koa.or.kr) 혹은 전화(02-780-2765)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3. 발전기금 모금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정형외과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 학회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대국민 봉사활동에 사용될 발전기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와 중첩되는 진료과목간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회원 교육과 대정부 정책지원 등을 통하여 과거 정형외과의 영역을 확보하는데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 학회발전기금 후원자 세제 혜택

- 발전기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근거법령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영수증 발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발전기금 세제혜택 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세액공제)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30%(경비처리)

- 학회 발전기금 계좌: 국민은행 269101-04-099716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 발전기금 약정서

대한정형외과학회 발전기금 약정서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예우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기부자 정보

성명: _____ 주민번호: _____

주소: _____ ☐ 자택 ☐ 근무처

전화번호: _____ 팩스: _____ ☐ 자택 ☐ 근무처

휴대폰: _____ 이메일: _____ ☐ 없음

우편수령: ☐ 자택 ☐ 근무처

◆ 근무

약정금액 (합계: _____ 원)

☐ 일시납: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납부

☐ 분할납: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X

☐ 정기납: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 월 1만원 ☐ 월 3만원 ☐ 월 5만원 ☐ 월 10만원 ☐ 기타 (_____ 원)

◆ 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269101-04-099716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기금의 용도

☐ 교육 및 연구 활동 ☐ 회원 권익 증진 ☐ 대국민 봉사활동 ☐ 기타 _____

본인(회원)은 대한정형외과학회 발전기금에 출연한 것을 약정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우편물 수령 동의함 ☐ 기부내역 공개를 원치 않음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기부(약정)인 _____ (서명)

4. 학회 사무실 이전 안내

학회 사무국이 기존 여의도에서 서울역 근처로 이전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 및 관련학회 회의 개최가 가능하오니 회의실 사용 문의는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사무실 새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50 갑을빌딩 6층 (04334)
• 회의실 새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서울 A Tower 606호 (04323)

5.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모든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 드리오니 학회 안내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소식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CIO)은 65세 이상 회원님들께만 무료 배포되며, 간행물구독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유료화 안내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학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37차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

제37차 정형외과 전공의 평가시험을 6월 11일(토), 전국 수련병원 2,3,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시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년차별 우수자는 아래와 같으며, 포상은 10월 21일(금)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 2년차: 최원락(한양대학교병원)
- 3년차: 연창진(계명대학교병원)
- 4년차: 김강백(서울대학교병원)

분야	수부	견주 관절	척추	고관 절	슬관 절	감염 대사	족부	외상	소아	종양	기초 재활	평균	최하	최고
배점	12	7	12	12	12	5	7	6	14	8	5	100		
2년 차	4.5	3.6	5.5	4.9	4.6	3.2	3.9	2.7	5.5	3.9	1.8	44	28	68
3년 차	5.2	4.7	6.2	6.0	5.1	3.4	4.2	3.1	6.1	4.4	2.0	50.6	26	73
4년 차	6.3	5.6	7.0	7.2	6.0	3.8	4.6	3.4	7.4	5.0	2.1	58	30	85



SICOT 국제학회 참가 논문발표 장학금 지원

2016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37th SICOT Orthopaedic World Congress에 참석하여 학술논문 발표(포스터 포함)를 하는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오니 해당 회원께서는 학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으로서 37th SICOT Orthopaedic World Congress에 참석하여 논문 발표(포스터 포함)가 확정된 사람
2. 장학금 : 1인당 30~50만원 추정 (논문 수에 따라 조정 지불될 예정임)
3. 구비 서류 : - 발표논문 초록 (사본 1부)
 - 논문 채택 확인 서류 (사본 1부)
 - 37th SICOT Orthopaedic World Congress 등록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 신청자 소속 및 연락처 (주소, 전화, 팩스), 송금계좌번호
4. 신청하실 곳 :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5. 신청 마감 : 2016년 8월 29일(월요일)
6. 장학금 지급 방법 : - 신청서류 심사 후 확정된 회원에게 온라인 송금
 - 논문 편당 저자가 1인 이상인 경우는 발표자에게 지급함
 - 한 사람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할 경우는 1편만 인정함.
7. 참조 : 장학금을 지원 받고 학술대회에 불참하거나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급조치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CiOS 공지사항

1. CIOS는 2017년 상반기에 SCI(E) 3차 등재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술진흥재단, SCOPUS, Medline Index 집지입니다.
2. CIOS는 그 동안 문제가 된 심사진행을 빨리해서 6주~8주내에 심사, 게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 현재(2016년 기준) 전공의 3년차부터는 전문의 시험자격 부여시 CIOS나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반드시 논문 한편게재가 필수요건입니다.
4. CIOS 편집위원들께서는 종설, 원문, technical note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1년에 한편씩 원고 부탁드립니다.
5. CIOS는 국외 Editorial Board Member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업적이 훌륭한 분들을 분야별로(미국과 일본이외의), CV와 함께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CIOS는 심사의 전문성, 지속성, 신속성, 공정성을 위해 국내 Editorial Board Member와 심사위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편집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CV와 함께 수시로 편집장 김신윤(syukim@knu.ac.kr)에게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편집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CIOS 편집위원의 임기는 없으며 수시 교체 가능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편집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분과책임 편집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부편집장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행정능력 등 종합평가 후 편집장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 국내외 저명학자들의 review article이나 학회의 진료 및 치료 guideline 등의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8. 현재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회원들의 SCI(E) 등재 논문수는 약 700~750편 전후로 세계 4~5위에 해당합니다. 그간 CIOS에도 6년의 Archives가 언제든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SCI(E) 논문게재시 CIOS 논문 1편만 인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 원고투여시 연구비 지원(병원, 의료 및 제약회사, 지자체, 정부, 법인)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원고투여시 개인 고유번호 등록인증제인 자사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RCID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자들의 고유 식별번호로 동명이인, 영문이름 표기의 다양화에 따른 저자 확인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CIOS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http://orcid.org>에 접속하셔서(Register now를 클릭) ORCID 번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ORCID는 CIOS 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학술지에서 도입하고 있으니 CIOS 투고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CiOS 인용상

CIOS 인용상은 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 CIOS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SCI(E) 잡지에 가장 많이 인용한 회원에게 수상합니다.
김신윤(CIOS 편집위원장)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

1. 본 학회 국문학회지인 대한정형외과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학진) 2013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결과 등재지 유지로 평가 받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심사받는 논문에 대해서 게재확정이후 저자변경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3.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영문으로 작성 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영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학술상 수상 대상 논문 접수

◎ 대한정형외과학회 2016년도 학술상 대상 논문을 접수합니다.

시상 부문 및 상금

1.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 1) 본 상: 임상 1편, 기초 1편 각 400만원
- 2) 장려상: 임상 3편, 기초 3편 각 100만원

2. 외부학술상

- 1) 만례재단상 1편 200만원
- 2) SICOT '93 Seoul 학술상: 본상 1편 300만원, 장려상 1편 100만원
- 3)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1편 300만원
- 4) ISTA 2009 Seoul 학술상 1편 200만원
- 5) CIOS 학술상 1편 300만원
- 6) CIOS 논문 인용상 1편 300만원

선정 기준

1. 학술논문상

가.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2009 Seoul 학술상

- 1) 본 학회 회원이 지상에 발표한 학술적 공헌이 지대하고 인정되는 논문
- 2) 주 연구기관이 국내기관
- 3) 제1 저자나 통신저자 중 1명은 본 학회 회원
- 4) 학술상심사위원회 내규에 따른 소정 기준

나. CIOs 학술상은 CIOs 편집위원회에서 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 CIOs에 출간된 논문 중 3편을 추천하여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다. CIOs 논문 인용상은 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 SCI(E) 잡지에 지상 발표한 논문 중 CIOs에 게재된 논문을 많이 인용한 **저자가 직접** 신청한다.

※ 위 모든 논문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도 7월까지 기간에 지상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 1) 1976년 10월 21일 또는 이후에 출생한 회원 중 정형외과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 2) 연구논문 업적으로 심사함.

구비 서류

1. 학술논문상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2009 Seoul 학술상 (상의 구별 없음)

- 1) 신청서 1부 (우편 제출)
- 2)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우편 제출)
- 3) 논문 PDF 파일 (E-mail 제출 - ortho@koa.or.kr)
* 논문 PDF 파일이 없는 경우 논문 별책 1부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추천서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 제출 후 PDF 파일을 이메일 제출 시 꼭 학술논문상 신청 메일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우편제출)

- 1) 지원서(소정양식)
- 2)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자유형식) 1부
- 3) 생년월일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4) 논문 목록에 표기한 모든 논문

3. CIOs 논문 인용상 (우편, 이메일 제출 가능)

- 1) 신청서(소정양식)

서류 마감

1. 접수마감: 2016년 7월 29일(금)

2. 접수방법: 모든 서류는 학회 사무국 또는 이메일(ortho@koa.or.kr)로 제출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해당병원 과장님 앞으로 공문 발송
2. 시상 : 2016년 10월 21일(금), 대한정형외과학회 정기총회 때

기 타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실 (☎ 02-780-2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시험 논문 점수 규정 개정안

◎ 전문의 시험 논문점수 규정안

2016년 6월 23일 제59대 집행부 제3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전 규정(현행)	개정된 규정
논 문 제 출	1. 전문의 시험에 필요한 논문 점수(전문의 시험응시 직전까지임)는 최소 3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골관절종양, 골연부조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컴퓨터수술 포함)나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잡지에 원저로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한다. 단,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여러 병원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적절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의료원 산하병원 전공의들은 제외)	1. 전문의 시험에 필요한 논문 점수(전문의 시험응시 직전까지임)는 최소 3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골관절종양, 골연부조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컴퓨터수술 포함)나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잡지에 원저(사제)로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한다. 원저는 3점, 증례보고 및 종설은 1점으로 인정한다. 단,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여러 병원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적절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의료원 산하병원 전공의들은 제외)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그리고 SCI(E)에 등재된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는 3점이며 출간되거나 채택되면(accepted) 인정한다. ※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가 아닌 SCI(E) 등재 학술지일 경우 제1자 또는 통신저자가 정형외과의사이고, 정형외과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은 3점 인정. 그 외 논문은 사안에 따라 심의함.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그리고 SCI(E)에 등재된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는 3점이며 출간되거나 채택되면(accepted) 인정한다. ※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가 아닌 SCI(E) 등재 학술지일 경우 제1자 또는 통신저자가 정형외과의사이고, 정형외과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은 3점 인정. 그 외 논문은 사안에 따라 심의함.
	2) 분과학회지 및 관련학회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 인정한다. ①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2점: Hip and pelvis (구, 고관절 학회지),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수부, 견주관절, 류마티스, JBM(구, 골대사학회지), 골다공증, Asian spine journal,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 ②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는 1점: 미세수술, 관절경, 정형외과연구, 정형외과스포츠의학, 정형통증의학회, 척추신기술헌회, AOSM(대한관절경 - 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Hand Surgery (Asian-Pacific Federation of Societies for Surgery of the Hand 공식잡지)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2점 인정)	2) 분과학회지 및 관련학회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 인정한다. ①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2점: Hip and pelvis (구, 고관절 학회지),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수부, 견주관절, 류마티스, JBM(구, 골대사학회지), 골다공증, Asian spine journal,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 ②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는 1점: 미세수술, 관절경, 정형외과연구, 정형외과스포츠의학, 정형통증의학회, 척추신기술헌회, AOSM(대한관절경 - 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Hand Surgery (Asian-Pacific Federation of Societies for Surgery of the Hand 공식잡지)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2점 인정)
	3) 증례보고(case report)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그리고 SCI(E)에 발표된 경우는 1점을 인정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는 0.5점을 인정. 그 외의 분과 및 관련학회지는 인정하지 않음. 증례보고는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나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잡지에 원저로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하는 규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4) 상기 점수는 필요에 따라서 대한정형외과 이사회에서 분과 및 관련 학회지의 질을 재평가 하여 조정한다.	3) 증례보고(case report) 및 종설(Review article) 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그리고 SCI(E)에 발표된 경우는 1점을 인정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는 0.5점을 인정. 그 외의 분과 및 관련학회지는 인정하지 않음. 증례보고는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나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잡지에 원저로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하는 규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사제) 4) 상기 점수는 필요에 따라서 대한정형외과 이사회에서 분과 및 관련 학회지의 질을 재평가 하여 조정한다.
비 고	2. 대한정형외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	2. 대한정형외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모든 논문에서 전공의 3인까지인 인정하고 배정된 점수를 전공의 수로 나눈 점수를 인정한다.	4. 모든 논문에서 전공의 3인까지인 인정하고 배정된 점수를 전공의 수로 나눈 점수를 인정한다.
	상기의 개정된 전문의 시험 논문점수는 2017년 1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한다.	
	※ 전문의 시험 논문 자격 중 대한정형외과학회지, CIOs, SCI(E) 학술지는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된 경우는 발간(Printed publication)되지 않더라도 논문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학술지는 발간된 경우만 인정한다. (주 저자가 정형외과 의사이고 정형외과 관련 학회지이어야 한다)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1. 제24차 대한건·주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시 : 2016년 7월 9일(토)
- 장 소 : 세종컨벤션 홀(세종대학교 관개토관, 지하 2층)
- 연수평점 6점 / 대한스포츠의학회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평점 30점
- 사무국 (H.P. : 010-9607-1397 또는 E-mail : vienna2000@hanmail.net)

2. 2016년 대한미세수술학회 춘계 미세수술 워크샵

- 일 시 : 2016년 7월 9일(토) 오전 08:30~오후 05:15
- 장 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실용해부실습실 내 미세수술 실습실(Microsurgery lab.)
- 안내사항
 - 참가 비용 : 30만원. 하나은행 576-910183-37607 (예금주: 강종우)
 - 확보된 수술 현미경(25대)의 제한으로 실습 지원자를 25명으로 제한합니다 (입금 선착순 마감)
 - 실습 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모든 분에게 대한미세수술학회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를 드립니다.
 - 사용할 "Loupe"는 각자 준비해 오시기 바라며, 분실 위험이 있으니 개별 표식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 Loupe 없어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 기구: micro needle holder, micro scissor, micro forcep 2개, vessel clamp 등은 실습 시 따로 제공될 예정이나 평소 쓰시던 개인 기구가 있으시면 준비해 오셔도 좋습니다.)
 - 연수교육 평점 (예정):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시험과 갱신 때 업적점수로 인정 예정
 - 지원 신청: 아래 내용을 기재 후 이메일(ky10326@naver.com)로 신청 (입금 선착순 마감)
 - 신청 시작일 : 2016년 5월 18일
 - 문의 연락처 : 문가연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비서 H.P. : 010-9475-2338)

3. 2016 CAOS-KOREA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 시 : 2016년 09월 23일(금) 08:30~17:30
- 장 소 :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층 대강당
- 초록접수안내
 - 1) 접수마감 : 2016년 7월 29일(금)
 - 2) 접수 방법 : caoskorea2015@gmail.com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fax로는 접수 받지 않으니,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등록방법에 따라 접수하여 주십시오.
- 연락처 : Tel : 02-3410-2206, Fax : 02-3410-0061, H.P. : 010-9933-3533 (총무 문영원) E-mail : caoskorea2015@gmail.com

4. 대한관절경학회 제35차 추계학술대회

- 일 시 : 2016년 10월 8일(토)
-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6층 대강당, 소강당
- 초록접수안내
 - 접수마감 : 2016년 8월 14일(일)
 - 접수 방법 : http://korarthro.com/register/2016_fall/abstract/info.html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관절경학회 홈페이지(www.korarthro.com)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문의 사항
 - Tel : 02-3010-8632 / Fax : 02-6919-2444 / E-mail : korarthro@naver.com



교실 소식

1. 제21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연구회 카데바 워크샵

- 일 시 : 2016년 7월 16일(토): Knee, 오전 7시 40분~오후 6시
7월 17일(일): Shoulder, 오전 7시 40분~오후 6시 30분
- 장 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의학관 5층 실용해부실습실
- 주 최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관절경 연구회
- 모집 인원 : 32명 (Knee 16명, Shoulder 16명)
- 수강료 : 각 Course 당 120만원 (Knee, Shoulder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240만원)
- 문의사항 연락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Tel : 031-412-5049 Fax : 031-487-9502

2. 제1회 삼성서울병원 Knee Symposium & Live Surgery

- 일 시 : 2016년 7월 17일(일) 08:25~18:00
- 장 소 :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평 점 : 6평점
- 사전등록마감 : 2016년 7월 13일(수) 까지
- 문 의 : 서태희(Tel : 02-3410-3508, E-mail : taihee28@naver.com)

3. 제7차 광주 골절·외상 심포지엄 2016

- 일 시 : 2016년 8월 7일(일) 09:00~17:40
- 장 소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
- 연수평점 : 6점
- 사전등록기간 : 2016년 8월 1일(월) 까지
- 연락처 :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임상교수 김도연 (H.P. : 010-9611-3504, Tel : 062-220-6336, Fax : 062-225-7794)
- E-mail : doyoun@gmail.com

4. 2016 경희대 Shoulder Live Surgery "어깨밖에 난 몰라 (I only know the shoulder)"

- 일 시 : 2016년 9월 3일(토)
- 장 소 :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청운관) B117, 201호 205호 및 수술실
- 프로그램:
 - Live surgery
 1. Remplissage procedure
 2. Open Bankart repair
 3.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with temporary suture passer needle
 4. Arthroscopic subscapularis repair
 5.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with humeral-side lateralized implant
 6.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with augmented glenoid plate implant
- 문의 및 연락처 : 경희대학교병원 건관절 클리닉 Tel : 02-958-8360, Fax : 02-964-3865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임상강사 김정연) H.P. : 010-2957-7259, E-mail : myshoulder@daum.net

5. 2016년도 가톨릭의대 슬관절 심포지엄

- 일 시 : 2016년 9월 4일(일)
-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6. 서울대 정형외과 "2016 SNU Orthopaedic Update (IV): FOOT & ANKLE" 연수강좌

- 일 시 : 2016년 9월 4일(일) 09:30~16:10
- 장 소 :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1강의실
- 연수 평점 : 5평점
- 주 최 : 한국인체기초공학연구재단
- 주 관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문 의 : 장은정(Tel : 02-2072-2360, E-mail : os2360@naver.com)



1. The 5th Asia Hip Arthroscopy & Joint Preservation Symposium

- 기 간 : 2016년 7월 29일(금)~30일(토)
- 장 소 : 중앙대학교병원 세미나 홀

2. 2016 3rd Annual Pan Pacific Orthopaedic Congress

- 기 간 : 2016년 8월 10일(수)~13일(토)
- 장 소 : Hilton Waikoloa Village in Kona, Hawaii
- 웹주소 : <http://icjr.net/>

3. 4th ASIA Annual Meeting

- 기 간 : 2016년 9월 1일(목)~3일(토)
- 장 소 : Baiyu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n Guangzhou, Guangdong, China.
- 웹주소 : <http://www.arthroplasty.asia/>

4. ISHA Annual Meeting 2016

- 기 간 : 2016년 9월 15일(목)~17일(토)
- 장 소 : San Francisco, CA, USA
- 웹주소 : www.ishameetings.net/

5. SRS 51st Annual Meeting & Course

- 기 간 : 2016년 9월 21일(수)~24일(토)
- 장 소 : Prague Congress Centre in Prague, Czech Republic.
- 웹주소 : <http://www.srs.org/am16/>

6. ICRS 2016-13th World Congress

- 기 간 : 2016년 9월 24일(토)~27일(화)
- 장 소 : Hilton Sorrento Palace in Sorrento, Italy
- 웹주소 : <http://cartilage.org/>

7. EUROSPINE 2016

- 기 간 : 2016년 10월 5일(수)~7일(금)
- 장 소 : CityCube Berlin in Berlin, Germany
- 웹주소 : <http://www.eurospine2016.eu/>

8. ISTA 29th Annual Congress

- 기 간 : 2016년 10월 5일(수)~8일(토)
- 장 소 : Westin Copley Place in Boston, USA
- 웹주소 : <http://www.istaonline.org/>

9. 2016 IFSSH & IFSHT Triennial Congress

- 기 간 : 2016년 10월 25일(화)~28일(금)
- 장 소 : Hilton Buenos Aires Hotel in Buenos Aires, Argentina
- 웹주소 : <http://www.ifssh-ifsht2016.com/>



■ 축하합니다.

1. 이 송(서울성심병원) 회원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취임
2. 박종범(가톨릭의대) 회원 AO국제척추기구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위원장 선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박종범 교수가 AO국제척추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집행부 선거에서 한국 척추의사로써 처음으로 리서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세계에게 가장 방대한 조직과 규모를 가진 AO국제척추기구는 대륙 별 집행부를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이에 지난 6월부터 7월초까지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집행부 선거에서는 300명의 회원국 대의원들이 참여하였는데 박종범 교수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3년 임기의 리서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으로 3년간 아시아태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척추 질환 및 외상에 관련된 임상 및 기초 연구를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어 한국 척추외과의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다.

한편 박종범 교수는 2013년 AO국제척추기구 지식포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3년 임기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및 척추관 협착증 등에 대한 생물학적 치료의 최신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들을 많은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3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하여 2019년까지 지식포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집행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다.

■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박경진(충북의대) 회원 부친상

CONFERENCE

1.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월일	병 원 명	개최월일	병 원 명
2016	7월 1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9월 8일	국립경찰병원
	11월 10일	일산동국대병원	12월 8일	서울백병원
2017	2월 9일	서울대보라매병원	3월 9일	건국대병원
	5월 11일	서울의료원	6월 8일	순천향대학교병원
	7월 13일	국립중앙의료원	9월 14일	한진병원
	11월 9일	고대구로병원	12월 14일	삼성서울병원
2018	2월 8일	중앙대학교병원	3월 8일	서울성모병원
	5월 10일	경희대학교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1, 4, 8, 10월 없음)

•연락처 : Tel : 02-2072-2367~2368, E-mail : yoojw@snu.ac.kr

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 도	날 짜	횟 수	병 원 명
2016	7월 6일	제 119차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9월 7일	제 12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2일	제 121차	세란병원
2017	3월 8일	제 122차	광명성애병원
	5월 10일	제 123차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7월 5일	제 124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월 6일	제 125차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11월 1일	제 126차	연세사랑병원
2018	3월 7일	제 127차	세란병원
	5월 2일	제 128차	아주대학교병원
	7월 4일	제 129차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9월 5일	제 13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7일	제 131차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 02-2228-2180~2181, E-mail : os@yuhs.ac, 담 당 : 송미현

고문변호사 칼럼

고문변호사칼럼은 정형외과와 관련한 의료소송 사례들과 의료 법률상식 등을 알기쉽게 게재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통해 의료법률에 관한 궁금사항을 남겨주시면 고문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조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술 도구 조작상의 과실과 형사사건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1941년생인 여자환자는 양쪽 악관절 강직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시술의사가 원고의 유착된 오른쪽 하악과두를 두개골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연조직을 분리시키는 프리어(freer)를 사용하다 앞부분이 3cm 정도 파손되어 원고의 두 개강 내에 분리되었다. 이후 환자의 오른쪽 하악과두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여 시술의사가 거즈로 압박지혈을 한 후 왼쪽 하악과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고 다시 오른쪽 하악과두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X-ray를 동원하여 프리어 파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뇌CT 검사에서 프리어 파편이 원고의 오른쪽 전두엽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고, 오른쪽 뇌출혈과 뇌부종이 진단되어, 신경외과에서 오른쪽 두개골 절제술 및 혈중제거술을 실시하였지만,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12일 후 오른쪽 뇌조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 프리어 파편도 함께 제거하였다. 이후 환자는 뇌손상에 따른 사지 부전마비, 저작 및 개구장애, 안면마비 등이 발생하였다.

법원은, ① 프리어가 부러졌음에도 파편을 바로 찾지 않고 지혈을 위해 거즈로 출혈부위를 누름으로써 파편이 두개강 안으로 밀려들어가게 한 과실과 ② 프리어를 하악과두와 측두골 사이 골유착이 된 부분에 끼워 지렛대 원리로 박리하려다 부러진 것은 프리어에 과도한 힘을 가한 점, 프리어가 부러졌음에도 파편을 곧바로 찾지 않고 거즈로 압박지혈을 함으로써 프리어 파편이 두개강 내까지 밀려들어가게 한 점 및 프리어 파편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곧바로 신경외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수술부위를 봉합한 점 등에 관한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3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수술 중 도구가 부러져 두개강 내에 들어간 이후 즉시 찾아내지 못하고 환자가 뇌손상에 따른 사지부전마비 등을 앓았으므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의사로서는 수술기구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한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는 프리어를 악관절 유착 분리용으로 사용한 점과 관련된 과실에 대하여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그 논거로, 프리어는 통상 10~15kg의 하중에도 견디는데 오랜 기간 사용한 경우 피로골절 등으로 부러질 수 있고 해당 프리어는 2일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프리어가 파절된 정확한 원인이나 피고인이 실제 과도한 힘을 준 것인지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에 있어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이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과실은 제1,2심 판정이 유지되었으므로 완전히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다.

기소된 사건에 무죄판단을 받기는 어렵지만, 의외로 형사사건에서는 과실인증이 충분하지 않아 무죄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의사들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 중 3분의 2 이상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과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나 비슷한 취지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단을 받으면, 민사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된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만은 아닌 듯 싶다.

출간소식

1. 제2판 필수정형외과학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필수정형외과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2007년 제1판 출간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정형외과학의 최신지견과 치료방법들을 수록하여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의학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정형외과를 널리 소개하고 기본적인 정형외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충분한 교과서로서 의과대학 학생, 일반의사, 기타의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격 : 60,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01-0571-043

•구입은 최신의학사(Tel : 02-2263-4723)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출간하신 여러 선배회원님들의 노고로 1989년 10월 정형외과학용어집 제1판이 발간. 1997년 10월 제2판이 발간된 후 10년여의 세월이 흘러 거의 사용치 않는 용어도 생겨나고 정형외과학의 발달로 수많은 새로운 용어의 탄생으로 용어집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 2판에 누락된 용어 및 새로이 탄생한 용어의 보완과 사용치 않는 용어(폐어)를 삭제하고 일본식 용어도 우리말 용어로 개정하여 출간하였습니다.

•가 격 : 50,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3. '장해판정기준' - 사지및척추분야- 개정판발간

장해판정을 하는 정형외과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들 물론, 사회에서 배상 및 보상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법조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회의와 워크샵에서의 토론을 통해 2005년 초판 이후 첫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가 격 : 회원 15,000원/ 비회원 30,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4. 골·연부종양 치료지침(Treatment of Bone and Soft Tissue Tumors)

30년간의 골·연부 종양을 치료하면서 겪은 임상 경험과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골·연부종양 치료지침'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골·연부종양의 진단부터 치료와 추시과정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 종양을 전공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평소 종양에 관심이 많은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도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자 : 이수용

•가 격 : 비매품, 무가(발송료 본인 부담)

•연락처 :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의국(Tel : 02-970-2176, chowanda@naver.com)

신한은행(110-165-197845 조원형)으로 5천원 입금하시고 매일 주시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5. 정형외과학 7판 발간

•구 입 : 최신의학사(Tel : 02-2263-4723)

•가 격 : 300,000원대

※새로 개정된 정형외과학 7판 내용 중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오표를 공지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Page	구조문	신조문
89	그 외 동종골이식, 골수 이식 및 세포이식 등이 있다.	그 외 자가 골수 이식 및 자가 세포 이식 등이 있다.
89	골원세포	골조상세포
89	골대체물로는 수산화 인회석(hydroxyapatite),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카본산칼슘(calcium carbonate), 황산칼슘(calcium sulfate) 등이 대표적이다.	골대체물로는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카본산칼슘(calcium carbonate), 황산칼슘(calcium sulfate) 등이 대표적이다.
90	골 전도능력은 좋으나, 초기의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없고, 골유도 능력이 없으며, 이물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골 전도능력은 좋으나, 초기의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없고, 골유도 능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90	재형 교원질은 골전도가 용이할 수 있는 틀(scaffold)을 제공하여 골형성을 촉진시킨다.	재형 교원질은 골전도가 용이할 수 있는 틀(scaffold)을 제공하여 골전도에 도움을 준다.
90	bone morphogenic protein	bone morphogenetic protein



한국형 소염진통제 펠루비정

한국의료진에 의해서 연구개발된 국내신약
“한국형 골관절염·요통 치료제” 펠루비정

*Celecoxib와 Aceclofenac제제와의 국내 다기관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 Pelubiprofen의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Prodrug 형태로 위장관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NSAID 입니다.


Daewon
Daewon Pharm. Co., Ltd.

아

Upper GI Risk를
도파하는 OA/RA 환자^{1,2}

五〇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과
비오틴이 포함된 OA/RA 환자³



KO

Lower GI Risk를
통제하는 OA/RA 환자^{1,2}

위 : Upper GI Risk를 동반한^{1,2}

자: Lower GI Risk를 동반한^{1,2}

이피리+클로피그렐과 병용하여

60세 이상의 OA/RA 관절염 환자에게
써레브렉스로 시작하세요!⁴

GI: Gastrointestinal, OA: Osteoarthritis, RA: Rheumatoid Arthritis

References 1. Chan FKL, Lanas A, Scheiman J, Berger MF, Nguyen H, Goldstein JL. Celecoxib versus omeprazole and diclofenac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and rheumatoid arthritis (CONDOR): a randomised trial. *Lancet*. 2010;376:173-79. 2. Cryer B, Li C, Simon LS, Singh G, Stillman MJ and Berger MF. GI-RESONS: A Novel 6-Month, Prospective, Randomized, Open-Label, Blinded Endpoints (PROBE) Trial.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13;108:392-400. 3. Lee WJ, Suh JY, Yang HM, et al. Celecoxib Does Not Affect the Platelet Effects of Aspirin and Clopidogrel in Healthy Volunteers. *Korean Circ J*. 2010;40(7):321-327. 4. 보르비츠키 노그라디. *대내과* 2013;130호

[illegible]

수입판매원 : 한국화이자제약
 공동판매 : pfizer 한국화이자제약
 100-771 서울 중구 퇴계로 110번지 화이자타워 TEL : (02)317-2114, 수신자부담 080-022-1400 www.pfizer.com

전용)

KCE-1502-30